정답 찾는 아이에서 생각 만드는 아이로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 대입 개편은 단순한 시험 변경이 아닌 평가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르게 될 2033학년도 대입부터 수능과 고교 내신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및 서술형, 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 교육을 지배해 온 정량적 오지선다형 시험과 무한 경쟁의 상대평가 체제가 종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인공지능이 무한한 지식을 생성하는 시대에 정답 번호를 빠르게 골라내는 단순 암기 능력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

주어진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언어로 논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깊이 있는 사고력이 새로운 학업 성패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 채점의 신뢰도를 철저히 확보하고 사교육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서·논술형 평가의 확대는 주관성 개입에 따른 공정성 논란과 사교육비 증가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 해외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 서술형 평가의 채점 신뢰도 실추는 제도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세부적인 분석적 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보조 채점 기술과 전문 교사의 블라인드 평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고가의 사교육 컨설팅이 유행하지 않도록 공교육 차원의 AI 글쓰기 피드백 플랫폼을 제공하여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초등 단계에서는 양적 선행보다 깊이 있는 논리적 서술력을 길러야 한다

입시 지형의 변화는 초등학교 교실과 가정의 학습 방식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제한다. 문제집을 수없이 풀며 진도만 나가는 정량적 선행학습은 서·논술형 평가 체제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초등 저학년에는 읽은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이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말하기와 글쓰기 연계 훈련으로 문해력 기초를 다져야 한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주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와 예시를 갖추는 3단계 문단 작성 프레임워크를 체화해야 한다.

국어의 지문 요약과 비판적 글쓰기, 수학의 풀이 과정 역설명, 사회와 과학 현상의 인과관계 서술 등 교과별 과정 중심 학습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 공교육 중심의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미래형 인재가 완성된다

2033학년도 대입 개편은 정답을 찾아내는 기술자를 키우던 과거에서 벗어나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사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대적 결단이다.

교육 당국은 일선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정성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가 단순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독서와 논리적 서술 중심 교육으로 전환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미래 인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주식시장은 실험장이 아니다

기자 수첩
신 하 은
〈자본시장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규제 조치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인 데 이어 오는 19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개인투자자의 모의거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르면 9월부터는 최소 거래 수량을 기존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도한 거래를 막고 시장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 27일 시장에 등장했다. 출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에 거래가 몰리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거래가 과열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고, 금융당국은 결국 잇따른 보완책을 내놓았다. 시장에 상품을 선보인 뒤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 된 셈이다.

규제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은 뒤 부작용이 나타나자 뒤늦게 규제를 덧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상품은 한번 시장에 출시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이 투자자의 손익에 확대돼 반영되는 만큼 출시 단계에서부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영향에 대한 검토가 더욱 촘촘해야 한다. 시장을 먼저 열어놓고 문제가 드러난 뒤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식은 사전적인 위험 관리와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이 급감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개인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약 387억달러(약 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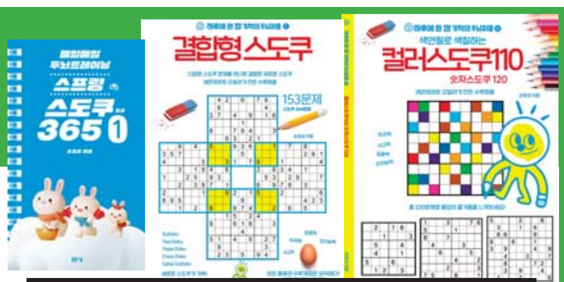
시장 참여자들이 떠안는 부담도 적지 않다. 일례로 거래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려면 증권사들은 고객 계좌와 주문 시스템 등을 다시 손봐야 한다. 우선 잡혀 있던 전산 개발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 정책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규제가 금융회사에는 또 다른 비용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물론 증시 변동성을 레버리지 ETF 하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다만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상품을 시장에 도입한 뒤 뒤늦게 거래 문턱을 높이는 현재의 과정은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애초에 시장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을 충분히 따져본 뒤 제도를 설계했느냐는 중요한 질문이다.

주식시장은 정책의 시행착오를 시험하는 실험장이 아니다. 시장을 여는 속도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그 시장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다. 부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는 일이 반복된다면 시장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지고, 그 비용은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godhe@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하는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8		3	9		5
	4			5				7
					7	6		
		5						
			2	3	9			
						7		
		1	3					
2				1			8	
8		9	7		6		2	

		7		1		4	8	
	2							
			8		4			9
2			3					
1	3						2	4
					6			5
4			9		1			
							5	
	8	3		5		6		

3	9	7	2	1	5	4	8	6
8	2	4	6	7	9	5	1	3
5	6	1	8	3	4	2	7	9
2	5	9	3	4	7	1	6	8
1	3	6	5	9	8	7	2	4
7	4	8	1	2	6	3	9	5
4	7	5	9	6	1	8	3	2
6	1	2	4	8	3	9	5	7
9	8	3	7	5	2	6	4	1

1	2	7	8	6	3	9	4	5
9	4	6	1	5	2	8	3	7
5	8	3	4	9	7	6	1	2
3	1	5	6	7	4	2	9	8
7	6	8	2	3	9	1	5	4
4	9	2	5	8	1	7	6	3
6	5	1	3	2	8	4	7	9
2	7	4	9	1	5	3	8	6
8	3	9	7	4	6	5	2	1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3일 (음 7월 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 **48년생**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다른 것을 취하려 마세요. **60년생** 어려운 일일수록 느긋하게 대처하세요. **72년생** 임자가 있다면 단념하는게 좋습니다. **84년생** 성실하게 대처하면 소득이 따릅니다.

소 — **49년생** 갈길은 멀고 여유는 없으니 답답합니다. **61년생** 바쁠수록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73년생** 지나친 과욕은 주위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85년생** 주위의 관심을 받게되는 하루입니다.

호랑이 — **50년생** 활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62년생** 자신감있게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74년생** 계획했던 일이 있다면 의욕있게 추진하세요. **86년생** 주위의 칭찬을 들을 일이 많습니다.

토끼 — **51년생**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이 필요합니다. **63년생** 장기적인 관망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75년생** 점진적으로 도약하는 하루입니다. **87년생** 노력한 만큼 결실도 따라줍니다.

용 — **52년생** 도와주어야 할 곳은 많고 실속은 없습니다. **64년생**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한 하루입니다. **76년생**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88년생**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뱀 — **53년생** 이득보다는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길합니다. **65년생** 신중하게 판단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77년생** 남에게 도움을 주는 하루입니다. **89년생** 받기보다는 베푸는게 좋습니다.

말 — **54년생** 엎지른 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66년생**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78년생** 상사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0년생**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게 좋습니다.

양 — **55년생** 피하지 말고 정면승부가 필요합니다. **67년생** 행동보다는 계획을 잘 세우는게 먼저입니다. **79년생** 밝고 따뜻한 색과 함께 하면 행운이 있습니다. **91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원숭이 — **56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68년생** 고집보다는 조언을 듣는게 좋습니다. **80년생**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일을 그리칠 수 있습니다. **92년생** 과한 자신감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닭 — **57년생** 친한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볼 것이니 주의하세요. **69년생** 윗사람의 말을 반드시 잘 새기세요. **81년생** 큰 거래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93년생** 금전운이 좋으나 방심하지 마세요.

개 — **58년생** 노력을 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70년생** 육신이 힘들지만 친구가 찾아옵니다. **82년생** 매매는 미루고 소송은 당겨 진행하세요. **94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돼지 — **59년생** 고민은 많으나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71년생** 지금보다는 다음을 기약하세요. **83년생**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복이 있습니다. **95년생** 옛 친구에게 연락하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의처증 의부증

강남 대치동에 사는 K여인은 남편이 경제력도 상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반열에 속하는데 자상하기까지 하다. 부부동반 모임에 나가면 다른 부인들이 K 부인을 한결같이 부러워한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 타면서부터 부인은 피가 마른다. 말 한마디 없이 싸해지는 남편이 동석한 다른 부부의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웃은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갖다 붙이며 괴롭히기 시작한다. 이혼을 수도 없이 생각했지만, 무엇보다 이혼해줄 남자도 아니기에 울며 참는다. 부부가 살다 보면 때때로 배우자의 바람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 대부분은 흘러가는 단순 의심일 경우지만 때때로는 가정이 파탄 날만큼 심대한 해로운 일이 된다. 팔자로 볼 때 문제가 될 정도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의처의부살'(疑妻疑夫殺)이라고 명명할 만큼 공연히 아내 혹은 남편을 의심하게 만드는 흉살이다.

현대 의학에서는 의처증, 의부증을 부정망상(不貞妄想)이라고 하여 배우자 상대방의 정조(貞操)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의 하나로 밝히고 있다. 정신병리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망상(不貞妄想)은 의심하는 자의 과거 행실에 기인하여 그 비슷한 징후를 보게 되면 의심이 발동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배우자가 자신에게 불충실하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면 배우자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괴롭히고 자신도 괴로워한다. 부정망상의 정신병리학적 병으로 보는 것이다. 의학적인 판단과 사주학 관점에서 의부 의처증은 조금 그 판단의 결이 다를 수 있다. 의처의부살(疑妻疑夫殺)은 보통은 태어난 일주(日柱)를 기준으로 편관과 편인이 함께 하게 되면 발동하는데, 의처의부살(疑妻疑夫殺)은 마음 바꿔 먹는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가는 경향성이라 평생 의심을 담고 사느라 양방 모두 보통 고통스럽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7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7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